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엠마오의 식탁”

누가복음 24:28-32

현대인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출퇴근과 집안일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하는 일상의 허무함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거룩한 일은 예배당이나 특별한 성취 속에만 있고, 평범한 일상은 세속적이고 가치 없다고 여기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환멸을 안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평범하고 흠먼지 날리는 시골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닌, 허름한 집의 저녁 식탁에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은 거룩과 세속의 이분법을 깨뜨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걸으실 때, 우리가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 직장에서의 수고, 묵묵히 해내는 집안일은 결코 우주로 증발해 버리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찬란한 '새 창조'를 이어가는 영원한 벽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의 자리로 부활의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소그룹 나눔 질문

1. [일상의 허무함]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직장, 학업, 가사, 노동 등)중에서 가장 지루하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과 '세상에서 하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2. [엠마오의 식탁] “주 안에서 행하는 나의 모든 평범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부활의 메시지가 다가오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 주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새롭게 임하고 싶은 나의 ‘엠마오의 길’은 어디입니까?



✠ 교회소식 ✠

- ㉑ 예배
 - 117년의 믿음, 새 생명으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진실한 예배와 전도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내일을 엽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불꽃을 활활 태워, 끊임없이 생명을 낳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됩시다.
 - 예전예배학 제10강 : 26일(오늘) 1부 예배 후, 기도실
 - 본당 파이프 오르간 정비&수리 : 4월 27일(월)~5월 8일(금)
 - * 새벽기도회 : 온라인 송출 / 수요찬양예배(29일) 휴회
- ㉒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예식 : 5월 10일(주) 오후 3시, 본당
- ㉓ 정기당회 : 26일(오늘) 오후 1시 30분, 회의실
- ㉔ 모임
 - 중보기도 야유회 : 28일(화) 오전 9시, 철원제일교회
 - 구역장모임 : 5월 3일(주) 오후 1시, 회의실
- ㉕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대상 :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균형 잡힌 이해를 원하는 성도
 - 문의 : 길석현 권사
- ㉖ 2026년도 아나바다 선교바자회 : 26일(오늘) 2부 예배 후, 친교실 교회마당
 - 작은 음악회 : 최종걸 은퇴집사(501구역) 색소폰 연주(아외데크)
- ㉗ 교회학교주일 마당축제 : 5월 3일(주) 2부 예배 후, 교회마당
 - 놀이 프로그램, 먹거리 센터, 네컷사진 (전교인 참여)
 - 주차 : 해영회관 주차장 이용
- ㉘ 엘림아카데미 봄나들이 : 5월 6일(수) 부천무릉도원수목원 톨립축제 (오전 9시 30분, 가회동주민센터 앞 출발)
- ㉙ 소허당 전시 : 최은재 개인전(한국화) 5월 1일(금)~10일(주)
- ㉚ 식당봉사
 - 4월 26일(주) : 아나바다
 - 5월 3일(주) : 김미선 장금녀 최은진 / 방승주 이강민
- ㉛ 교우소식
 - 결혼 : 전진우 군, 한 민 집사(603구역) 5월 2일(토) 낮12시, 연세대학교알렌관
 - 축하 : 임하정 솔리스트, 2026년 음악춘추 콩쿠르 성악 대학부 3위 입상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취 오며, 우리를 부활의 날로 인도하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이 성자 예수를 가둘 수 없음을 기뻐하며, 그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심을 기뻐합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를 따르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중)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회의와 절망에서 일으키시고 우리 발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에 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표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파송

<부활절 성만찬>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어른으로 사는 일에 지친 당신에게”
/ 시131:1-3; 고전1:26-29; 마18:1-4 >

부활절 넷째주일에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요10:14)

(목사)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노라.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모든 권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곧 양들의 크신 목자를 죽음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목자로 보내시어 길 잃은 사람을 구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게 하시며, 지식과 명철로 서로 양육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73장 다 같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흠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회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430장 다 같 이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29:10-14(1096) 최은희 권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로마서 8:18-23(250) 최은희 권사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씀 목 상 >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24:28-32(140) 윤철용 안수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설 교> 『엠마오의 식탁』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윤철용 안수집사

찬 송 442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